

南北對話와 協商戰術

李 炳 豪

(南北赤十字會談 代表)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 目 次 —

1 . 對話 10 年의 발자취	3
2 . 北韓의 對南協商戰術	15
3 . 第 5 共和國의 平和統一 努力	21
4 . 對話의 展望	24
5 . 對話에 臨하는 우리의 姿勢	30

1. 對話 10 年의 발자취

가. 對話의 經過

70 年代 南北對話의 全過程을 概觀해볼 때 北韓側의 態度變化의 推移에 따라 다음과 같은 三段階로 나눌 수 있다.

第 1 段階는 1971 年 8 月 大韓民國이 赤十字會談을 提議한 때로부터 1972 年末까지, 第 2 段階는 1973 年初부터 同年 8 月 北韓의 「8.28 聲明」으로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가 中斷된 때까지, 그리고 第 3 段階는 8.28 聲明 以後 1980 年末에 이르기 까지이다.

○ 第 1 段階

이 期間 中에는 北韓도 南北對話에 매우 積極的이었다.

1971 年 8 月 12 日, 大韓赤十字社의 赤十字會談 提議(8.12 提議)에 北韓赤十字會가 應諾함으로써 「豫備會談」이 成立되었고 板門店에서 開催된 1 年間の 豫備會談 끝에 本會談의 議題와 開催場所가 合意되었다. 그리하여 赤十字 깃발을 앞세운 赤十字代表團 54 名(隨行記者 20 名 包含)은 4 半世紀에 걸쳐 쌓여진 分斷의 障壁을 뚫고 서울과 平壤을 오가면서 네 차례의 本會談을 가졌다.

한편 赤十字 豫備會談의 進行 中에 契機가 마련된 秘密接觸 通路는 서울과 平壤間에 密使를 相互交換(서울側 李厚洛, 平壤側 朴成哲)한 끝에 1972 年 7 月 4 日 南北韓이 처음으로 合意·署名한 歷史的 文書인 「7.4 南北共同聲明」이 同時 發表되었다.

이에 따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外交, 軍事 등 南北間의 全般的 問題를 討議할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 發足되었으며 調節委員會 또한 서울과

平壤을 오가면서 세 차례의 「共同委員長會議」를 開催하였다.

北韓當局은 大韓民國 代表團이 平壤을 訪問할 때마다 誠意를 다한 宴會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金日成이 直接 南韓代表들을 만났으며 會談이 열리면 그 內容이야 어쨌든간에 반드시 合意事項이 生産되었다.

돌이켜 보면 多分히 「祝祭的 行事」의 雰圍氣였고 「말의 盛饌」이었다고 評할 수 밖에 없는 對話이었으나 當時로서는 實로 南北關係에 新紀元을 여는 듯한 「興奮과 熱狂의 感激時代」였다.

○ 第2 段階

이 期間中 對話에 臨하는 北韓側의 態度는 急激히 冷淡해졌다. 그들은 잇달은 難題를 提起하여 會談을 膠着狀態에 빠트리더니 급기야는 「8.28 聲明」¹⁾으로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를 모두 中斷시키고 어렵게 뚫린 서울·平壤間의 通路를 遮斷시켜 버렸다.

이 期間 동안에 세 차례의 赤十字 本會談이 開催되었으나 北赤은 離散家族問題 討議의 先決條件으로 이른바 南韓에서의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의 改善」(條件環境論)을 앞세워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았으며, 韓赤이 膠着된 會談에 突破口를 마련하기 위한 示範事業으로 提案한 「秋夕省墓團 相互交換事業」도 拒否하였다.

註 1) 「8.28 聲明」

1973年 8月 28日, 南北調節委員會 平壤側 共同委員長 金英柱는 平壤放送을 통하여 1) 大韓民國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撤回하고, 2) 反國家事犯들의 處罰을 中止하고 그들의 政治活動을 合法化시키며, 3) 刑執行 中인 反國家事犯들을 釋放하고, 4) 調節委員會 서울側 共同委員長을 交替하며, 5) 調節委員會에 各 政黨社會團體와 各界各層 人民代表들을 參加시키지 않는 限 一切의 南北對話를 할 수 없다는 聲明을 發表

南北調節委員會도 두 차례 열렸으나 이 또한 難關에 逢着했다. 서울側은 南北間에 信賴를 造成하기 위하여 經濟, 社會, 文化 分野의 優先討議를 提案했으나 平壤側은 軍事問題를 들고나와 「軍事5個項」²⁾을 先決條件으로 내놓았을 뿐 아니라 民族 앞에 嚴肅히 合意·署名한 「7.4南北共同聲明」을 無視하고 南北調節委員會를 政治協商會議로 變質시키려 했다.

이 期間 동안 南北對話에서 金日成이 모습을 감춰버렸고 會談의 開催頻度는 줄어들었으며 적어도 겉으로는 융숭하던 北韓側의 迎接態度도 눈에 띄게 冷冷해졌으니 그것은 서울側 代表團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의 數에서도 實感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부터 北韓側은 서울會談에 參加하는 自己側 成員들에 대한 統制 監視를 嚴格히 했으며 서울에서의 觀光, 視察行事도 拒否했다.

北韓側의 이러한 態度變化는 8.28 聲明으로 이어져 두 줄기의 南北對話는 모두 中斷되었으니 感激時代는 失望時代로 變해버린 것이다.

○ 第3段階

이 期間에 北韓側은 그나마 板門店에서 命脈을 維持해오던 「赤十字 實務會議」와 「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마저 決裂시키고 南北을 잇는 「直通電話」도 끊어버렸다.

「8.28 聲明」으로 實質上의 南北對話는 이미 終末을 告한 것이었으나 大韓民國의 끈질긴 再開努力과 内外의 輿論을 못 이긴 北韓當局은 板門店에서의 格下된 次元의 對話開催를 提議해 왔다.

註2) 「軍事5個項」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1973年 3月)에서 平壤側 共同委員長 代理 朴成哲은 1) 武力增強과 軍備競争의 中止, 2) 10萬 以下の 減軍, 3) 武器와 軍需物資의 搬入禁止, 4) 美軍撤收, 5) 以上을 擔保하는 協定의 締結을 調節委員會 討議의 先決條件으로 내세웠음.

그리하여 赤十字會談은 1973年 11月 28日부터 1977年 12月 9日까지의 사이에 7次的 實務代表 接觸과 25次的 實務會議를 開催하였다. 여기서 韓赤은 難關에 逢着한 會談의 突破口를 마련하기 위한 示範事業으로 「省墓訪問團의 相互交換」, 「老父母問題의 優先解決」, 「家族寫眞의 交換」, 「南北赤十字社 總裁와 首席代表의 面談」 등 온갖 誠意있는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北赤은 계속 「條件環境論」을 先決條件으로 내세워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南韓情勢에 따라 「美軍撤收」, 「韓·美合同軍事訓練」, 「學園의 民主化」, 「宗教의 彈压」 등을 問題삼아 神聖한 人道主義會談을 政治적으로 惡用하려 했으며 赤十字會談의 成果를 애타게 기다리는 1千萬 離散家族들의 悲願을 外面하였다.

여기에 特記해야 할 일은 「朝總聯系 在日同胞 母國訪問事業」이다. 朝總聯系 在日同胞들은 北韓共產集團과 같은 思想과 理念을 갖고 大韓民國을 反對해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母國訪問 目的이 人道的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드렸고 이들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넓고 따뜻한 母國의 사랑에, 속아 살아온 지난날을 後悔하였다. 이 儼然한 事實은 北韓의 主張과는 달리 大韓民國의 反共法規나 反共團體의 存在란 人道的인 離散家族 찾기事業에 何等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立證한 것이었으며, 이로써 北赤의 「條件環境論」은 根據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結局 그들은 겨레의 輿望과 世界의 耳目에 놀려 名目上으로나마 계속하던 赤十字實務會議마저 「팀·스피리트訓練」을 핑계로 「無期延期」시킨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1978年 3月 20日로 約束된 第26次 實務會議를 하루 앞둔 3月 19日의 일이었다.

한편 南北調節委員會는 「副委員長會議」로 格下된 채 1973年 12月 5日부터 1975年 3月 14日까지 10次에 걸쳐 板門店에서 開催되었다.

이 會議에서 서울側은 調節委員會에 當局과 政黨代表를 參加시키는 「擴

大改編案」을 내놓아 그 運營에 伸縮性を 보였음에도 不拘하고 平壤側은 調節委員會의 改編案으로서 南北의 各其 60~70個 政党에서 最少 700名, 最大 3,000名이 參加하는 群衆集會方式을 提示했을 뿐 아니라 그 案에는 存在하지도 않는 「統革党」을 包含시키면서 「統一에 反對하는 政党, 團體와 個人은 除外되어야 한다」는 但書까지 붙여 놓았다. 도대체 韓國사람으로서 統一에 反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論理에 의하면 「共產主義에 反對하는 것은 民族團結에 反對하는 것이요, 民族團結에 反對하는 것은 統一에 反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結局 平壤側은 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 再開의 先決條件으로 美軍撤收, 反共政策의 拋棄, 6.23 宣言의 撤回 등을 내놓고 一方的인 「無期延期」를 通告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또한 1975年 5月 30日로 約束된 第11次 實務會議를 하루 앞둔 5月 29日의 일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을 돌려 이 期間 동안에 會談場 밖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살펴보자. 大韓民國이 「相互不可侵協定」締結 提議(1974.1.18), 「平和統一3大基本原則」提示(1974.8.15), 「古美術品 考古學資料 交換·共同展示」提議(1976.4.12), 「食糧援助 提供用意」表明(1977.1.12) 등 즐기찬 平和努力을 傾注한데 反하여, 北韓側은 우리 漁船「守元號 擊沈」(1974.2.15), 「大統領 狙擊」(1974.8.15), 「南侵用 땅굴」(1974.11.15, 1975.3.24, 1978.10.27發見), 「休戰線 擴聲機放送」(1975.1.24), 「板門店 도끼蠻行」(1976.8.18), 「南北直通電話 斷切」(1976.8.30) 등 會談場內에서의 南北韓의 立場을 如實히 反映하고 있다.

나. 卓球會談과 總理會談

이 두 會談은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와는 類型이 다른 對話形態로

서 北韓當局의 欺瞞性과 對話를 惡用하려는 底意가 뚜렷이 나타난 實例이다.

1979年 2月, 北韓側은 同年 4月 平壤에서 開催 豫定인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南北韓이 單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卓球會談을 板門店에서 열자고 提案해 왔다. 同大會의 平壤開催는 이미 2年前에 決定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大會를 不過 2個月 앞두고, 더우기 對陣表 추첨은 1個月 밖에 남기지 않은 時點에서의 突然한 提議에 接한 우리側으로서는 北韓側의 底意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韓國代表團은 北韓側에게 “韓國選手團은 世界卓球聯盟의 會員으로서 當然히 平壤大會에 參加할 權利가 있다. 따라서 單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의 結果에 關係없이 同大會에 參加할 수 있다는 「既得權을 保障」하라”고 要求했다.

그러나 北韓側은 우리의 至極히 當然한 保障要求는 끝내 拒否하면서 오히려 南北韓이 “單一팀 構成에 原則的 合意를 보았다”는 聲明을 먼저 發表하자고 固執했다.

說明할 것도 없이 北韓當局은 가슴에 太極마크를 단 大韓民國 選手團이 平壤에 오는 것을 막아야 했으며 이를 正面 拒否하는데서 招來될 後患이 두려운 그들은 「單一팀 構成原則 合意」를 理由로 對陣表에서 韓國을 除外시킨 뒤 國旗, 國號, 國歌, 記章, 選手選拔 등 限없이 複雜한 節次問題로 時限을 넘길 속셈이었던 것이다.

結局 卓球會談은 決裂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北韓側은 끝내 韓國選手團의 平壤入國 與否를 밝히지 안했기 때문에 우리 選手들은 世界卓球聯盟이 指定한 集結場所인 제네바 空港까지 가서 平壤行 마지막 專貫機까지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總理會談은 「10.26 事態」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1980年 1月, 北韓側의 便紙攻勢를 우리側이 總理會談으로 逆提議하자 北韓側이 이를 받아들임

으로써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接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北韓代表는 總理會談의 議題로서 「北과 南이 合作하고 團結할데 대하여」라는 模糊하기 짝이 없는 것을 내놓아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더니 同年 9 月 全斗煥 大統領이 就任하여 大韓民國의 政治的 安定이 加速化되자 即時 實務接觸을 決裂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 決裂시키는 手法 역시 前例와 다름 없었다. 그들은 實務接觸 再開의 「先決條件」으로서 1) 軍政撤廢와 ㅍㅈ行爲 中止, 2) 非常戒嚴令 解除, 3) 拘束된 民主人士 釋放을 내세웠으며 決裂시킨 日字도 1980 年 9 月 26 日로 約束된 第 11 次 實務接觸을 하루 앞둔 9 月 25 日의 일이었다.

結局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接觸은 「10.26 事態」以後의 政治的 空白期에 便乘하여 大韓民國의 混亂을 加重시키고 나아가서 北韓의 口味에 맞는 「民主人士」의 執權을 側面支援하겠다는 北韓當局의 虛慌된 發想에 따라 시작됐던 것으로서 「偽裝對話」의 좋은 標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北韓의 誤判과 對話의 中斷

6.25 南侵이 北韓에 의하여 저질러진 最大의 誤判이었다면 이와는 性質을 달리하나 70 年代初의 南北對話 成立도 北韓當局의 다음과 같은 誤判에 의한 것이었다.

첫째, 駐韓美軍 撤收에 대한 誤判이다. 南朝鮮解放의 最大 障礙物은 駐韓美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金日成은 그의 모든 努力을 美國을 쫓아내는데 集中하여 왔다. 때마침 소용돌이치는 美國內의 反戰데모와 거센 國際 輿論 때문에 美軍은 越南에서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契機로 하여 美國의 外交政策도 「新孤立主義」로 轉換하기 시작함으로써 韓國을 包含한 亞細亞全域으로부터의 美軍撤收 展望은 매우 濃厚했다. 北韓當局은 이

러한 狀況에 便乘하여 美軍을 「달래서」 스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判斷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南北對話라는 平和的 제스추어를 取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厭戰思想과 孤立主義는 一時的인 것이었다. 駐韓美軍의 存在는 戰爭의 危險을 招來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效果的인 戰爭抑止力이라는 認識이 새로와짐에 따라 美國政府는 “駐韓美軍의 撤收는 戰爭抑止를 위한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에 異常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內에서만 考慮될 수 있다”는 것을 明白히 함으로써 그들의 判斷은 빛나가고 만 것이다.

둘째, 大韓民國 政治情勢에 대한 誤判이다. 北韓의 對南戰略은 傳統的으로 「統一戰線戰術」에 立脚하여 對南 地下工作을 통한 이른바 南韓內 「愛國的 民主人士」와의 提携에 力點이 두어 졌으나 이것은 大韓民國政府의 強力한 反共政策과 國民들의 透徹한 反共精神으로 번번히 挫折되어 왔었다.

그러나 1971年의 第7代 大統領選舉에서 強力한 故 朴正熙大統領은 不過 百萬票 未滿의 差異로 辛勝했을 뿐 아니라 野党은 지금까지의 禁忌를 깨고 平和統一問題를 選舉이슈로 들고나와 激烈한 統一論爭에 불을 붙여 놓았다. 北韓當局者들은 이러한 새로운 情勢에 便乘, 南北對話를 通路로 하고 平和統一 論議를 媒體로 하여 南韓의 愛國的 民主人士와 統一戰線을 形成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反共體制 崩壞를 企圖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企圖도 빛나갔다. 賢명한 우리 國民들은 對話의 推移를 지켜 보고 對話에 대한 一時的이고 幻想的인 期待를 가라앉힌 뒤 「對話 없는 對決」에서 「對話 있는 對決」로의 姿勢를 가다듬었다. 그들은 南北對話를 反共體制 弱化的 方便으로 利用하려 했지만 오히려 참다운 意味의 反共體制를 整備. 強化시켜준 꼴이 된 것이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赤十字會談의 慶會樓 리셉션에서 北韓代表들은 “野党代表는 어디 있습니까?”, “勞動者代表는 안 왔습니까?” 하면서 반가히

찾아가 손을 내밀었으나 이에 應待하는 野党, 勤勞者, 宗教人, 言論人들의 毅然한 態度는 對內的으로는 서로 批判하고 牽制하나 對外的으로는 힘을 합치는 自由民主體制의 本質과 大韓民國의 底力을 誇示한 좋은 例가 되었다.

세째, 經濟隔差에 대한 批判이다. 社會主義經濟의 優越性을 強調, “北은 地上天國이요, 南은 生地獄”으로 宣傳하면서, “하루 속히 失業과 貧困으로 呻吟하고 있는 南朝鮮人民들을 奴隸狀態로부터 解放시켜 주어야 한다”고 떠들어 온 그들의 눈에 비친 南韓의 實相은 北韓의 立場과 姿勢에 決定的인 衝擊을 안겨 주었다.

南北韓의 經濟發展 競争에 있어서 北韓의 劣勢는 儼然한 現實이었고 이는 「南朝鮮解放理論의 破産」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北韓共產體制 自體의 安定基盤까지도 威脅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訪問하는 北韓代表團이 가장 강한 拒否態度를 取한 것이 서울의 「百貨店視察」이었다는 점이 이를 端的으로 示唆하는 것이 된다. 言論이 統制된 閉鎖性이 강한 社會일수록 「사발통문」의 威力이 센 것이며 서울을 訪問하는 北韓側 人員이 아무리 精選된 骨髓分子들이라 할지라도 家族과 親知들의 입을 통하여 傳播될 南韓의 生活相에 대하여 北韓當局者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誤判이 곧 對話中斷의 原因이었다.

北韓當局은 그들의 判斷이 誤判이었음을 안 순간 이미 對話의 中斷을 決定했으며 그런 意味에서 70 年代의 對話는 對話 第1段階인 1972 年末로써 끝이 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 第2段階는 對話의 進展을 가로막으면서 오직 中斷의 口實을 만드는데 급급했을 뿐이다.

라. 對話의 得失

몸소 北韓共產主義를 體驗했고 그들과의 鬪爭에 앞장섰던 人士들은 對話의 初期부터 南北對話 自體에 懷疑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當初에는 對話에 期待를 걸었던 國民들도 時間의 經過에 따라 北韓의 本色이 드러나자 그 期待는 失望으로 變했고 失望은 다시 憤怒로 變해 갔다. 北韓共產集團과의 對話는 「時間과 精力의 浪費」이기 때문에 「對話는 無用」이라는 意見이 續出했으며 보는 角度에 따라서는 大韓民國의 꾸준하고 誠實한 對話 努力이 「屈辱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실상 對話 그 自體만을 놓고 볼 때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具體的 成果는 없다. 헤어진 家族과의 再會를 애타게 기다리는 離散家族들에게 消息 한장 전해 주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그칠 사이 없는 北韓의 挑發로 因하여 南北間의 緊張은 對話 以前보다 더 高潮된 느낌이었다. 이른 새벽 統一路邊에 늘어선 離散家族들의 배웅을 받으며 板門店으로 向했던 우리側 代表들은 결코 會談이라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난장판을 겪고 돌아오는 歸路에서 항상 납덩이 같이 무거운 心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70年代의 對話를 對話 그 自體만의 成果를 갖고 評할 수는 없다. 그것은 祖國의 平和統一이라는 크고도 긴 歷程에서 評價되어야지 對話 10年이란 「한 小節」만을 끊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對話의 得失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對話 그 自體보다는 「對話外的인 것」을, 눈 앞에 보이는 戰術的인 것보다는 보다 높은 次元의 「戰略的」인 眼目에서 評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脈絡에서 70年代의 南北對話를 評價할 때 그 가장 큰 得으로서 「戰爭抑止」를 들 수 있다.

돌이켜 보면 70年代初는 그 어느 때보다도 戰爭再發의 危險이 높았던

때였다. 이른바 「4大軍事路線」으로北韓의南侵準備는 60年代末로써完了되어 있었고, 越南戰에서 失敗한 美國은 平和警察로서의 役割이 疑問視되었으며 南韓의 反政府勢力은 政權의 安定基盤을 威脅하는 듯했다. 即北韓이 南侵할 수 있는 與件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時點에서의 南北對話 提議는 北韓으로 하여금 戰爭이라는 直接手段을 留保케 하면서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赤化統一을 할 수 있다는 誤判을 나게 한 것이었다.

對話 10年에서 얻은 得의 또 하나는 이 期間 동안에 이룩한 눈부신 「經濟成長」이다. 「貧困으로부터의 解放」과 「經濟第1主義」를 내세운 第3共和國이 1人當 國民所得에서 北韓을 앞지른 것은 겨우 1969年末이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經濟成長에 自信을 갖게 되었고 繁榮된 未來가 約束된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다만 「時間」이었다. 大韓民國이 南北對話를 提議한 時點이 바로 70年代初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背景에서 理解되어야 하며 우리는 對話를 통해서 얻은 時間으로 「漢江邊의 奇蹟」을 낳고 中進國의 先頭그룹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大韓民國은 對話를 통하여 커다란 精神的인 得을 얻었다. 對話 10年の 발자취는 우리 國民들에게 「反共教育의 生생한 教科書」가 된 것이다.

우리 國民들은 서울을 訪問하는 北韓赤十字會 代表團을 離散家族의 再會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赤十字人」으로서 따뜻이 맞아 주었으나 平壤으로 돌아간 北赤 代表團長 金泰禧는 “南朝鮮人民들은 우리를 赤十字代表로서가 아니라 偉대한 首領 金日成원수께서 보내신 使徒로서 熱烈히 歡迎하였다.”고 公言했으며 會議場에 나온 北赤 諮問委員 尹基福(노동당 代表), 金炳植(朝總聯 副議長)도 “偉대한 首領 金日成”을 連發하였다.

南北對話 以前까지 形式的이고 口號的이며 政府에 의해서 끌려 가듯 했던

「反共」은 對話의 進行過程을 지켜 본 國民들 하나하나의 가슴에 참다운 意味의 反共을 심어 주었으며 幻想적이고 無分別했던 統一論争에 制動을 加했을 뿐 아니라 6.25를 體驗하지 못한 젊은 世代들에게는 北韓共產集團의 實體를 똑똑히 보여주게 된 것이었다.

南北對話를 통한 反共教育의 산 教科書적인 役割은 비단 大韓民國 國民들에게 局限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友邦美國의 官吏, 學者, 言論人에 대하여도 北韓共產主義는 東歐共產主義나 西歐共產主義와 判異하다는 것을 認識시키는 契機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駐韓美軍의 撤收를 選舉公約으로 내걸고 當選된 카터大統領이 就任한 지 얼마 안되어 이를 撤回한 背景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70年代 對話에서의 「失」은 무엇인가?

結論부터 말한다면 得에 比하여 아주 微微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大韓民國의 「失」이라기보다 北韓의 「得」으로서 두드러진 것은 「外交의 伸張」이었다. 北韓은 政權의 出生부터 合法性을 認定받지 못한 데다가 6.25 南侵으로 「戰犯의 烙印」까지 찍혀 國際社會에서는 「私生兒」의 處地를 免할 수 없었다. 그러한 北韓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인 大韓民國과 卓子에 마주 앉음으로써 相對적으로 北韓의 地位는 格上되었으며 修交國도 增加되고 I.L.O (國際勞動機構), W.H.O (世界保健機構) 등에도 加盟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外交的 伸張은 嚴密하게 따져서 南北對話의 影響이 아니라 當時 世界를 휩쓸고 있던 데탕트의 餘波였으니 그것은 언제 닳쳐도 닳칠 國際的 추세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蛇足を 단다고 하면 大韓民國 「反共教育의 虛像」이 露出된 것이라고 하겠다. 盲目的으로 北韓이란 험벗고 굶주리는 곳이라고 배워 온 學生들은 對話當時 TV画面과 칼라画報에 비친 平壤市街를 보고 衝擊

받았던 事實을 두고두고 말하고 있다. 部分的이나 政府와 教育에 대한 不信을 招來했던 이 經驗은 앞으로의 反共教育에 教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北韓의 對南協商戰術

가. 北韓의 戰術目標

對話 10 年の 발자취에서 보았듯이 迂餘와 曲折을 겪고 中斷과 再開를 거듭하면서 進行되어 온 對話過程에서 北韓側은 「입으로는 平和와 民族」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武力과 暴力」에 의한 南朝鮮革命路線을 追求하는데는 아무런 變化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即 그들은 南朝鮮革命이라는 戰略은 不變인 채 다만 戰術的 手段으로서 南北對話を 擇한 것에 不過한 것이었으며 그 戰術目標란 駐韓美軍을 撤收시키고, 大韓民國의 反共體制를 崩壞하며 反共政權을 打倒시키고 容共政權을 세우는데 있었다.

첫째, 駐韓美軍의 撤收

越南戰 介入의 失敗, 닉슨大統領의 「괘」島宣言³⁾ 그리고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이어지는 一連의 事態는 金日成을 鼓舞⁴⁾케 했으며 韓國을 包含한 亞細亞 全域으로부터의 美軍撤收는 時間問題라고 誤判케 했다. 따라

註 3) 닉슨의 「괘」島宣言

1969 年 8 月 5 日, 닉슨大統領은 “亞細亞의 防衛는 亞細亞國家 自體로 處理되어야 한다”고 宣言함으로써 亞細亞國家에 대한 美國의 軍事的 不介入을 闡明

4) 닉슨의 中共訪問

1971 年 8 月 6 日, 金日成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公」歡迎演說에서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을 “白旗를 들고 降伏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음.

서 金日成은 南北對話를 成立시킴으로써 韓半島에 平和무드를 심어 美軍이 韓半島에 머물러 있을 名分을 褪色시켜 그 撤收를 재촉하려 했다.

둘째, 反共體制의 瓦解

強力한 反政府勢力의 登場과 過熱된 統一論爭이라는 狀況을 利用, 여기에 南北對話를 加勢시킴으로써 大韓民國의 反共體制를 一舉에 瓦解시키려 했다. 「平和」와 「民族」을 앞세운 偽裝對話 攻勢로는 「北으로부터의 威脅」과 「總力安保」의 빛을 잃게 하고, 反共法과 國家保安法の 存在를 有名無實케 하며, 反共政策, 反共教育의 根據를 없앨 뿐 아니라, 特히 6.25를 겪지 않은 젊은 世代들에게 北韓共產主義者들이 “빨 달린 도깨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同胞라고 認識케 하려던 것이 그들의 目標이었던 것이다.

세째, 反共政權의 打倒

赤化統一의 障礙要因中 하나는 強力한 領導者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安定된 政權의 存在이다. 北韓 當局者들은 1971年의 大統領選舉 結果 朴大統領의 支持基盤이 흔들린다고 보고 이 機會에 反政府勢力을 부추겨 反共政權을 쓰러트리려고 보다 容共的인 政權이 나오기를 期待한 것이다.

南北對話는 大韓民國 國民의 緊張을 弛緩시킬 것이며 和平무드에 젖은 國民들은 自由와 民主를 謳歌하면서 政府에서 말하는 「總力安保」란 단지 政權維持의 方便인 것처럼 들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 北韓의 主要提案 分析

— 先決條件·原則合意·無期延期 —

南北對話에 參加했던 우리 代表들은 北韓側과의 會談에서 用語의 混亂으로 當惑했던 일이 許多했다. 그것은 「協商」이란 用語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들의 概念으로는 協商이란 「利害 當事者가 相互讓步와 合意를 통하여 紛爭을 解消하는 것」으로 定義된다. 即 GIVE AND TAKE의 概念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辭典에는 協商이란 「戰場에서 爭取할 수 없었던 것을 會議席上에서 爭取하는 것」이라고 明記돼 있다. 쉽게 말해서 “내것은 원래 내것, 네것도 내것”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이 協商테이블에 나와 앉았다고 해서 討論과 理解와 讓步를 통하여 어떤 折衷案이나 合意에 到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난날의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내놓은 엉뚱하고 당치도 않은 提案들도 이같은 共產主義式 協商概念에서 把握돼야 할 것이며 그들이 南韓과의 協商에서 얻으려는 圖式이란 「駐韓美軍 撤收 — 軍事的 均衡 破壞 — 南侵契機 捕捉」과 「反共體制 瓦解 — 容共政權 樹立 — 合作(赤化統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北韓의 協商戰術이며 지난날 몇 가지 類型的 會談에서 나타난 그들의 提案이라는 것들도 이러한 戰術的 바탕에서 形態만 달리하고 나타난 것인 바 그 共通的手法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先決條件

北韓側의 傳家宝刃과 같은 典型的 協商手法이다. 그들은 會談 앞에 先決條件이라는 「자물쇠」를 걸어 놓고 그 進行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美辭麗句로 단장한 提案의 꼬리에다 이 先決條件을 매달아 實地로는 實現不可하게 한다.

○ 赤十字會談과 「條件環境論」

北韓代表團은 離散家族問題의 實質的 討議에 들어가자, “大韓民國의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의 改善이 없이는 討議에 들어갈 수 없다.”

(條件環境論)고 하면서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았다. 具體적으로 말해서 反共法, 國家保安法 등 大韓民國의 一切의 反共法規를 撤廢하고, 모든 反共團體들을 解體하며, 教育, 文化, 芸術에서 漫画에 이르기까지 一切의 反共的 要素를 一掃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實로 어처구니 없는 內容을 先決條件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 韓赤 首席代表는 “反共法, 國家保安法은 大韓民國을 暴力으로 전복하려는 者에게 適用되는 것이지, 人道的 問題의 解決은 積極 支持하는 것이 政府의 立場”이라는 「當局의 保障」을 明白하게 밝혔으나 北韓은 이를 끝내 撤回하지 안했으며, 그 後에도 美軍撤收, 反國家事犯의 釋放 등 先決條件의 數는 오히려 늘기만 했다.

○ 調節委員會와 「軍事5個項」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1973年 3月, 平壤)에서 平壤側 共同委員長 代理 朴成哲은 1) 武力增強의 中止, 2) 相互 10萬以下の 減軍, 3) 武器搬入의 中止, 4) 駐韓美軍의 撤收, 5) 以上을 擔保(保障)하는 協定の 締結이라는 軍事5個項을 先決條件으로 내놓고 이것의 解決없이는 다른 問題를 討議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아직 6.25의 記憶도 생생하고 武裝間諜 南派, 南侵用 땅굴, 漁船 拉北 등 北韓의 挑發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狀況下에서 南北間에 緊張을 緩和하고 信賴를 構築하기 위한 時急하고도 容易한 問題(離散家族, 經濟·文化의 交流)의 討議를 外面하고 있는 北韓이 軍事5個項을 先決條件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은 大韓民國의 「武裝解除」부터 시키겠다는 企圖가 明白하다.

軍事問題는 먼저 南北間에 完璧한 信賴關係가 이루어진 다음 確固한 制度的 保障아래 最終적으로 解決되어야 할 問題인 것이다.

○ 「高麗聯邦制」의 先決條件

이것은 남이 듣기에 그럴 듯한 提案을 내놓아 宣傳效果를 노리면서

우리들의 概念으로는 協商이란 「利害 當事者가 相互讓步와 合意를 통하여 紛争을 解消하는 것」으로 定義된다. 即 GIVE AND TAKE의 概念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辭典에는 協商이란 「戰場에서 爭取할 수 없었던 것을 會議席上에서 爭取하는 것」이라고 明記돼 있다. 쉽게 말해서 “내 것은 원래 내것, 네것도 내것”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이 協商테이블에 나와 앉았다고 해서 討論과 理解와 讓步를 통하여 어떤 折衷案이나 合意에 到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난날의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내놓은 엉뚱하고 당치도 않은 提案들도 이같은 共產主義式 協商概念에서 把握돼야 할 것이며 그들이 南韓과의 協商에서 얻으려는 圖式이란 「駐韓美軍 撤收 - 軍事的 均衡 破壞 - 南侵契機 捕捉」과 「反共體制 瓦解 - 容共政權 樹立 - 合作(赤化統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北韓의 協商戰術이며 지난날 몇 가지 類型的 會談에서 나타난 그들의 提案이라는 것들도 이러한 戰術的 바탕에서 形態만 달리하고 나타난 것인 바 그 共通的手法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先決條件

北韓側의 傳家宝刃과 같은 典型的 協商手法이다. 그들은 會談 앞에 先決條件이라는 「자물쇠」를 걸어 놓고 그 進行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美辭麗句로 단장한 提案의 꼬리에다 이 先決條件을 매달아 實地로는 實現不可하게 한다.

○ 赤十字會談과 「條件環境論」

北韓代表團은 離散家族問題의 實質的 討議에 들어가자, “大韓民國의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의 改善이 없이는 討議에 들어갈 수 없다.”

先決條件으로써 實現을 不可能케 하는 手法의 하나이다.

北韓當局이 最高 至善의 統一方案이라고 宣傳하는 이른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이라는 것도 그 序頭에는 “北과 南의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두고 이를 認定하는 바탕 위에서” 聯邦制를 實施한다고 하면서 그 末尾에는 1) 民主(容共)政府의 樹立, 2) 反共政策의 拋棄, 3) 美軍의 撤收를 先決條件으로 매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先決條件이라는 꼬리를 감춘채 “가장 現實的인 救國方案”이라고 宣傳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서로의 思想을 認定한다고 하면서 反共이라는 우리의 思想을 拋棄하라고 하는 것이나 相對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뻔한 것을 先決條件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聯邦制를 實現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의 先決條件 세 가지가 다 貫徹된다면 大韓民國은 이미 赤化된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구태여 聯邦制를 云云할 必要조차 없다. 이것이 바로 聯邦制案의 眞意임에 틀림없다.

② 原則合意

美國의 協商紛爭學者 「이크레」는 “共產主義者와의 協商에서 禁忌事項은 原則에 合意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即 그들은 그럴 듯하고 두리뭉실한 原則問題에 우선 合意를 받아 놓고 막상 討議에서는 이를 我田引水格으로 解釋하면서 그들의 페이스로 끌고간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北韓의 몇 가지 手法을 例示해 본다.

○ 7.4 南北共同聲明의 「統一3原則」

南北韓은 7.4 南北共同聲明에서 「自主」, 「平和」, 「民族的 大團結」을 統一原則으로 定하고 이에 合意 署名하였다.

여기에서 「自主」란 統一問題를 同族間에 스스로 解決하는 當事者 解決로, 「民主」란 武力이나 暴力을 拋棄하고 對話를 통하여 解決하는 것으로, 그리고 「民族的 大團結」이란 相互尊重과 內政不干涉으로 解釋하는 것이 常識임에도不拘하고 北韓側은 「自主」를 美軍撤收로, 「平和」를 國軍現

代化計劃 中止로, 「民族的 大團結」을 反共政策의 拋棄로 強弁하면서 對話의 進展에 難關을 造成했다.

○ 卓球會談의 「先 原則合意」

이미 說明했듯이 南北卓球會談은 우리 選手團의 平壤大會 參加를 沮止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北韓代表는 먼저 “單一팀 構成原則에 合意했다.”는 聲明을 發表하여 對陣表 추첨에서 大韓民國의 자리를 除外시킨 뒤 節次問題로 時限을 넘기는 方法으로 同族인 韓國選手團을 平壤大會에 不參시켰다는 内外의 非難을 모면해 보려고 한 것이었다.

○ 總理會談 議題의 「合作과 團結」

總理會談을 위한 豫備接觸에서 北韓側이 결코 議題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北과 南이 合作하고 團結할데 대하여」를 議題로 하자고 한 것은 실제로 討議에 들어가서는 總理會談을 그들이 바라는 方向(大民族會議)으로 끌고가기 위한 것이었다.

③ 無期延期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에서는 1年을 하루로 알라”하는 敎訓이 있다. 그들은 協商을 시작하는데 대한 代價를 要求하고 進行시키는데도 代價를 要求하며, 일단 中斷시켜 놓고 再開하는데 또 代價를 要求한다. 그들과의 協商은 中斷과 再開의 反復으로써 1年을 하루로 아는 끈기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側 代表들이 會談에 臨할 때마다 말하는 「忍耐와 誠實」도 이러한 意味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70年代의 對話에서 北韓은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 그리고 赤十字實務會議과 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 등을 모두 「無期延期」시켜 놓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이 無期延期라는 言語의 장난으로 會談의 決裂責任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3. 第5共和國의 平和統一 努力

가. 70年代 對話의 아쉬움

지난 10年の 南北對話를 통해서 우리는 戰爭을 防止했으며 오늘과 같은 經濟成長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忍耐와 誠實으로써 平和統一의 大道를 걸어 오음으로써 平和愛好國으로서의 國際的 이미지를 定着시켰다.

70年代 對話의 經驗은 우리에게 數 많은 敎訓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類型의 對話가 시작되어도 北韓의 企圖를 꿰뚫어 볼 수 있는 判斷力을 가졌으며 그 어떤 境遇에도 이에 對處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었다고 自負한다.

그렇다고 우리는 自慢과 安逸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지난날의 對話過程에서 未洽했던 點을 찾아내어 이를 補完하는 眞摯하고 謙虛한 姿勢가 必要한 것이다.

「이밥에 고기국」이 平生所願인 北韓代表들에게 갑자기 「제비집」과 「타조 간」料理를 먹였다던가 우물 밖을 나와보지 못한 그들에게 워커 힐에서 半裸의 쇼를 보인 것과 같은 行事的 側面에서의 試行錯誤는 且置하고라도 행여 對話의 姿勢나 體制의 面에서 아쉬운 점이 없었던가를 찾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集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對話體制」의 面이다.

統一問題는 民族全體의 問題요, 거기에는 學族的이고 超党的인 熱과 誠과 智慧가 總結集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對話體制가 當局

中心으로 偏在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을 否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高度의 專門的 知識과 精通한 情報, 그리고 徹底한 保安이 要求되는 對北戰略이 大學入試制度和 같은 國民的 合意를 거칠 수는 없으나 統一問題가 政府에 獨占되어 있다는 在野의 批判에 대하여는 眞摯하게 귀를 기울였어야 했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對話姿勢」의 面이다.

大韓民國의 對話姿勢가 民族的 良心에 立脚한 誠實한 것이었다는데는 異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對話를 끊지 안해야겠다는 一念과, 모든 提案은 當爲性和 함께 實効性(實現可能性)을 重視한 나머지 「消極的」이고 「防禦的」이며 「枝葉的」인 印象이 없지 않았다. 對話를 지켜보던 國民들 속에서 “우리側은 왜 끌려만 다니느냐?”는 소리가 가끔 터져 나온 것도 이러한 아쉬움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셋째, 「國民的 熱意」의 面이다.

北韓을 訪問했던 外國人들은 “北韓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거나 統一에 대한 熱意가 대단한데 南韓에서는 政府官吏조차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아직도 우리 國民들 가운데는 統一은 오늘의 問題가 아니라 「 먼 훗날의 問題」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大韓民國이 統一問題를 미룬다고 해서 北韓도 이에 따르지는 않는다. 統一은 우리의 主導에 의해서 成就해야지 결코 당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統一은 온 國民 가슴가슴에 간직한 統一에의 熱意가 結集되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새 政府의 對話體制

第5共和國은 出帆부터 平和統一에 대한 강한 意志를 보였으며 그것은 먼저 對話體制의 確立으로 나타났다.

우리 憲法은 大統領에게 統一政策을 建議하고 諮問하기 위한 憲法機關으로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를 設置한 것이다. 이 諮問會議는 地域別, 職能別로 各界各層이 總網羅된 近 9千名の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野黨代表는 勿論 過去의 反體制 人士들까지도 모두 參與하고 있으니 70年代의 對話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對話體制의 問題는 이로써 超黨的이고 學國的인 體制로 整備 強化된 것이다.

또 이들 諮問委員들은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不斷한 自體研修를 통하여 體得한 知識을 所屬된 職場과 地域으로 擴散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아쉬움이었던 統一問題에 대한 汎國民的 熱意의 昂揚에도 貢獻하고 있다.

다. 새로운 統一方案들

1981年 全斗煥 大統領에 의해서 發表된 「1.12提議」와 「6.5提議」는 平和統一에 대한 굳은 信念과 確固한 決意를 表明한 果敢하고도 劃期的인 提案들이다.

全 大統領은 「1.12提議」에서 北韓의 金日成에게 「主席」이라는 呼稱을 붙여 鄭重히 招請했으며 北韓에서 招請하면 언제든지 平壤을 訪問하겠다고 宣言했다. 全 大統領은 또 「6.5提議」를 통하여 서울, 平壤, 板門店 또는 第3國 어디서든지 金日成과 會談할 用意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積極的 對話攻勢를 늦추지 않았다.

새 政府의 統一努力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全斗煥 大統領은 1982年 1月 22日, 統一祖國의 憲法을 起草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를 構成할 것과, 統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過程에서 南北韓間에 平和를 保障하고 信賴를 쌓기 위한 措置로서 「南北韓間의 暫定的 基本協定」의 締結을 骨子로 하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議했다. 그리고 이 提議는 全 大統領이 國會에 直接 나가서 發表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意味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全 大統領의 새 統一方案에 이어 國土 統一院長官에 의해서 發表된 「20個 示範事業」은 南北韓間에 모두 時急하고도 實現可能的한 事業들이며 北韓 當局의 意向에 따라서는 選別的으로도 着手할 수 있는 伸縮性 있는 提案이다.

이러한 一連의 提議들은 北韓의 이른바 「祖國平和統一委員會」委員長 金一의 이름으로 일단 拒否되었으나 大韓民國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發表 不過 10餘日만에 世界 92個國 政府의 公式的 支持를 받고 있으며 支持國 中에는 南北韓 同時修交國은 勿論 北韓 單獨修交國들까지도 包含되어 있으니 北韓이 困境에 몰리게 될 것은 當然하다.

北韓의 「高麗聯邦制」는 이미 過去의 亡靈으로 變해가고 있으며 統一의 主導權은 大韓民國에게 있다는 것을 自信한다.

4. 對話의 展望

가. 關聯된 對內外 與件

○北韓의 與件

北韓當局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비롯한 一連의 統一方案들을

拒否하고 있으며 大體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條件이 充足되지 않는 限 大韓民國과는 어떤 類型의 對話나 接觸도 할 수 없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現 政權이 謝過하고 下野하여 새로운 民主政權이 樹立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政治犯들이 釈放, 復權되고 解散된 政黨, 團體들이 復元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國家保安法 등 一切의 反共法規와 反共機構들이 없어지고 「南朝鮮 社會가 民主化」되어야 한다는 것.

네째, 「6.23 宣言」이 取消되고 「두개의 朝鮮 策動」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

다섯째, 駐韓美軍이 撤收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北韓의 要求條件에서 對話에 臨하는 그들의 立場과 姿勢가 조금도 변하지 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期待하는 참다운 意味의 生産的 對話가 가까운 將來에 열릴 可能性은 稀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結局 生産的인 對話는 北韓當局의 根本的인 態度變化, 即 그들의 이른바 南朝鮮革命路線에 修正이 가해지지 않는 限 成立될 수 없는 바 적어도 金日成의 生存中에는 이러한 姿勢轉換이 不可能한 것이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① 金日成은 南朝鮮解放이라는 구실로 近 40年을 君臨해 왔다. 이제 와서는 어떤 名分으로도 이를 撤回할 수 없다.

② 北韓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南韓政權을 對話의 相對로 하는 것은 그를 認定하고 부추기는 結果가 된다

③ 南韓當局과의 對話는 對外的으로 平和共存에 同意하는 結果가 되고 이것은 「南朝鮮革命」의 褪色을 意味한다.

- ④ 平和共存의 結果로 빚어지는 南北韓間의 「 잘사는 競争」이 두렵다.
- ⑤ 南北對話로 因한 北韓住民들의 敵愾心 減退와 北韓體制의 動搖가 憂慮된다.

○ 北方 3角關係

中共·蘇聯·北韓이라는 北方 3角關係에서는 對話의 展望은 어둡다. 그것은 北韓에 대하여 가장 큰 影響力을 가진 中·蘇가 紛爭의 渦中에 있어 對話에 壓力을 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中共은 自身の 國內情勢가 아직도 不安하고 美國의 레이건行政府와의 呼吸調整이 되지 않은 現 狀況下에서 北韓이 蘇聯쪽으로 傾斜되는 것을 막아야 할 立場에 있다. 蘇聯 또한 레이건 以後 美國과의 關係가 惡化되고 있는 狀況에서 美·中共間의 關係發展을 牽制하기 위해서도 北韓이 蘇聯으로 붙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中 蘇 共히 韓半島가 位置하고 있는 戰略的 價値로 因하여 冒險을 避하고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對話를 통하여 일단 南北韓이 共存關係에 들어가기를 願하고 있으나 바로 그 地政學的 戰略價値로 因하여 北韓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나. 金正日 後繼體制

먼저 共產主義社會로부터 조차 「魚物塵 꼴뚜기」의 亡身을 겪으면서 세 아들에게 물려 주려는 金日成의 處地를 살펴 본다.

蘇聯과 中共의 경우, 革命 第1代의 指導者인 스탈린과 毛澤東의 生前에는 教條主義的인 硬直된 政策과 카리스마的 1人獨裁體制가 維持되었으나 그들이 죽고난 後에는 그들의 功過가 評價되고 그 評價된 功過를 土臺로 하여 路線의 修正과 格下運動이 일어났다.

金日成은 分明히 蘇聯과 中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北韓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적어도 내 子息만은 죽은 제 愛비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또 하나는 「1人獨裁」에서 「偶像化」를 거쳐 이제 「神格化」되어 있는 金日成의 자리를 누가 代身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金一이건 李鍾玉이건, 그가 人間인 以上 神이 다스리던 北韓이란 特殊社會를 統治하는 데는 問題가 없을 수 없으며 따라서 「神의 아들인 神」에게의 讓位가 不可避한 것이다.

그러나 金正日에의 後繼作業이 順坦하리라고 断定할 수는 없다. 어떤 名分으로든지 世襲에 의한 權力承繼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서 容納될 수 없기 때문에 國際社會에서의 批判과 壓力은 물론 이미 朝總聯을 비롯한 海外의 前衛組織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對內的으로도 金日成의 後妻 金聖愛와 그 아들, 後繼者 競争에서 밀려난 金英柱와 그 追從者그룹(이들은 金日成綜合大學 1期 卒業生들로서 政權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50代들이다) 그리고 比較的 開化(?)된 「테크노크라트」들이 과연 어느 程度의 反撥을 보일까 하는 것은 커다란 關心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여하간 金正日에의 後繼作業은 活潑히 進行中인 것 같으며 따라서 우리는 金正日 後繼 以後의 南北關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혀 相反된 두가지 假定을 세워볼 수 있다.

그 하나는 金正日是 결코 金日成과 같은 絶對的 權座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對外的 壓力과 對內的 反撥에 부딪쳐 「集團指導體制」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蘇聯이나 中共이 그러했듯이 現實路線으로의 政策轉換이 이루어지고 對南政策도 修正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假定이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은 우리의 希望이며 그 可能性을 따져볼 뿐 이러한 樂觀的인 假定에 期待를 걸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金正日이 “애비보다 못한 子息”이라는 評을 받지 않기 위하여 또는 抵抗勢力들을 沈黙시키고 對內的 不滿을 外部로 噴出시키기 위하여 過激路線으로 치달아 危險한 冒險을 敢行할지 모른다는 假定이다.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 可能性을 놓고 볼 때 이미 나이 70을 넘기고 6.25 南侵을 일으켜 慘酷한 쓰라림과 戰後復舊의 어려움을 겪어 본 金日成은 어느 정도 自制할 可能性이 있으나 「하룻강아지」金正日에게는 전혀 問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全斗煥 大統領이 就任初부터 統一問題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것도 可能하다면 金日成이 살아 있는 동안에 完熟한 統一與件을 마련하려는 深慮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對話展望과 그 類型

前項에서 보았듯이 北韓의 體制나 둘러싼 與件으로 보아 우리가 바라는 生産的 對話가 가까운 將來에 成立될 可能性은 稀薄하다. 生産的인 對話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重要的 原因은 두말할 것도 없이 北韓이 「南朝鮮革命」을 拋棄하지 않는데 있기 때문에 對話의 展望 또한 北韓이 그 路線을 바꿀 수 있는 狀況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아야겠다.

「南朝鮮革命」의 根據는 武力이나 暴力 또는 自體分裂 그 어느 方法이든 “北韓이 大韓民國을 먹을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大韓民國은 결코 무슨 方法으로든지 “먹을 수 없다”는 것이 確實해지면 그들의 對南路線도 軌道를 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韓民國의 政治的 安定과 持續的인 經濟發展으로써 北韓에 比하여 越等한 隔差가 벌어지는 狀況이 必要하다.

다음으로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가 더욱 向上되고 統一努力에 대한 支

持基盤이 막강하여 이것이 北韓에 대한 對話壓力으로 作用되는 狀況이다. 이런 狀況에서는 紛爭關係에 있는 中共과 蘇聯은 除外하더라도 第3世界의 非同盟國家와 東歐共產諸國으로부터의 孤立을 免하기 위해서도 北韓은 對南政策에 深刻한 考慮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金正日 後繼體制 構築過程에서 惹起될 수 있는 北韓 自體內的 狀況이다. 史上 最初의 共產主義 世襲體制가 생기는데 있어서 問題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여기서 派生되는 内部的 葛藤 속에서 黨과 軍部の 骨髓 左傾盲動分子들을 牽制할 수 있는 對抗勢力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웃의 中共과 같은 實用主義 路線으로의 旋回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對話를 拒否하고 있는 것은 分明히 北韓이지만 對話의 展望을 밝게 하고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있어서는 大韓民國 自身の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漠然하게 앉아서 北韓이 對話에 應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되고 그들로 하여금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生産的 對話가 아닌 「다른 類型的 南北對話」가 아주 가까운 時日內에 열릴 可能性도 있다. 지난날의 對話에서 北韓은 南北 對話를 하나의 戰術的 手段으로 利用하였다. 이러한 類型的 對話를 「偽裝 對話」라고 이름지을 때 北韓이 偽裝 對話에 나올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그 하나는 大韓民國의 積極的인 對話攻勢에 屈服하여 内外 輿論을 糊塗하기 위한 方便으로 對話에 應하는 척하는 경우이며, 現 時點에서 그 可能性은 매우 높다.

包括적이고 果敢하면서도 實現性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70年代의 경우와는 달리 對內的으로는 超黨的 舉國的인 支持를 받고 있으며, 「'88 올림픽」開催 決定으로 急上昇된 國際的 地位를 背景으로 北韓을 困

境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이러한 類型의 對話로 나올 경우에는 政府 對 政府의 對話를 避하고 赤十字나 體育, 學術 次元의 會談으로 나올 것이며 아니면 그들의 「高麗聯邦制」를 脚色 扮裝한 畸形的인 「變則對座」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對話類型은 萬에 一이라도 大韓民國의 政治情勢가 極度로 混亂해질 경우 北韓은 이 混亂을 더욱 加增시키고 國論을 分裂시키기 위하여 對話에 나오는 形態이다. 이 類型은 우리의 「當局間會談」을 拒否해 오던 北韓이 「10.26 事態」後의 政治的 混亂期에 便乘하여 「總理會談」에 應해 온 것과 같은 形態로서 이 경우 그들은 外形上 最大의 柔軟性を 發揮하여 大韓民國 國民의 對北 警戒心を 弛緩시키려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들은 우리가 진정 바라 마지않는 「生産的 對話」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努力하는 한편 언제 열릴지 모를 「偽裝對話」에 대한 萬般의 態勢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對話에 臨하는 우리의 姿勢

가. 基本姿勢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民族의 念願이며 至上의 課題이다.

民族의 異質化를 막고 겨레의 血脈을 잇기 위하여, 同族相殘의 悲劇을 막고 人間的 不幸을 解消하기 위하여, 精力의 消盡을 막고 未來의 繁榮을 期約하기 위하여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統一은 異端的 外來思想에 의하여 特定階級만을 위한 統一이 아니라 民族의 正統性에 立脚한 民族成員 絶對多數를 위한 統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對話에 臨하는 우리의 基本姿勢는 “統一의 主體는 大韓民國이며 반드시 우리의 主導下에 達成되어야 한다.”는 使命感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統一問題에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의 「홍정」이 있을 수 없고相反되는 두 理念과 體制를 합해서 둘로 쪼개는 「算術」도 있을 수 없다.

統一에의 길, 더우기 對話를 통한 統一의 길은 멀고도 險難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피로우면서도 榮光스러운 길이다.

大韓民國은 歴史的 首都 서울에 位置하고 全體人口의 3分之2를 占하며 연면히 이어오는 民族의 正統을 繼承하여 正義로운 民主福祉社會를 指向하고 있다. 우리는 6千萬 겨레의 主役이며 統一의 主役이라는 矜持와 責任感을 갖고 祖國의 統一은 반드시 우리의 主導로 成就시켜야 한다.

나. 誤判의 防止

北韓 共產主義者에게 있어서는 오직 「힘」만이 正義요, 眞實이다.

그들이 赤化統一의 妄想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도 힘에 의한 南朝鮮革命이 可能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것은 「南韓情勢에 대한 誤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들은 大韓民國 國民의 透徹한 愛國心을 誤判하고 있고 政府에 대한 國民들의 支持度를 誤判하고 있으며, 批判과 討論을 本質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體制 自體를 誤判하고 있다.

北韓으로 하여금 南朝鮮革命이란 전혀 可望없는 幻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이 참다운 對話의 廣場으로 끌어내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은 自由民主主義와 南北對決이라는 자칫하면 相衝되기 쉬운 두 가지를 同時에 追求해야 하는 어려운 立場에 있는 것이다. 만일

南北對決의 側面만을 強調하게 되면 能率化, 總力化의 名分아래 自由民主主義의 本質이 다치게 될 것이며 또 自由民主主義의 自由와 民主만을 強調하다 보면 非能率과 放縱과 對立에 빠질 憂慮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断面이 北韓의 視角에서는 大韓民國을 誤判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國民들은 우리가 한결 같이 信奉하고 渴望하는 自由民主主義를 가꾸고 키우기 위하여 言論의 批判, 野黨의 牽制, 勤勞者의 權益, 學園의 自由 등 모든 것이 活潑하게 그 機能을 發揮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北韓의 誤判要因이 되지 않을 정도의 「節度와 限界」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國民的 和合에 의한 政治의 安定과 完璧한 自主國防態勢 그리고 經濟發展의 極大化로써 南北間의 國力의 隔差를 넓히는 길만이 北韓의 誤判을 防止하여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는 捷徑인 것이다.

〈非賣品〉

南北對話와 協商戰術

1983年 2月 21日 印刷

198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所